

이타스 일본, 나고야에 신규 오피스 개소

이타스 일본지사가 요코하마 사무실에 이어 나고야에 추가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개소식에는 약 40명의 고객과 파트너가 참석하였습니다. 나고야 사무실에는 5명의 엔지니어와 2명의 키 어카운트 매니저(Key Account Manager)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프리트헬름 피카르트(Friedhelm Pickhard)회장은 개회사에서 "나고야 오피스는 이타스가 일본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2월 17일에 열린 나고야 신규 오피스 개소식

저자

안자 크랄 (Anja Krahl),
이타스, 언론 및 홍보
선임 매니저

이타스, IoT보안기업 트러스트포인트 인수



이타스가 IoT보안기업인 트러스트포인트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TrustPoint Innovation Technologies, Ltd.)를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타스는 커넥티드카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IoT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트러스트포인트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는 V2X 보안과 IoT를 위한 M2M (secure machine-to-machine) 통신 전문기업으로, 이타스의 임베디드보안 자회사인 에스크립트(ESCRYPT)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러스트포인트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의 사장 겸 CEO인 쉐리 쉐넌 밴스톤(SHERRY SHANNON-VANSTONE)과 이타스 캐나다의 데이비드 맥팔레인(DAVID MACFARLANE) 전무이사



escar USA 2017

기업, 학계, 정부가 함께하는 사이버 보안관련 정보공유의 장

자동차 임베디드 보안 관련 글로벌 최대 컨퍼런스인 escar의 미국 행사인 escar USA가 진행되었습니다. 5 회째를 맞은 본 행사는 6월 21일부터 이틀 간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이버 보안 위협, 위협 및 취약점과 관련한 폭넓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escar는 2003년 독일 쾰른에서 진행된 소규모 전문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유럽에서 연례 컨퍼런스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escar USA와 escar Asia로 확장된 관련부문의 대표 컨퍼런스입니다. escar USA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대비를 위한 산업, 학계 및 정부의 협력을 장려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총 300명이 넘는 다양한 참석자가 모여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논의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뤄냈습니다. 행사에서 진행된 총 19개의 발표 중, 특히 '사이버 보안 법적 책임의 진화하는 양상'에 대한 발표가 큰 호응을 얻었고, 이외에도 '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상황인식 침입 탐지', '차량 환경의 엔트로피와 무작위성 및 V2X 애플리케이션', '차량 셀 방식 연결의 위험 및 보안 평가'와 같은 주제발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escar의 발표 내용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심사되고 최종선정됩니다. 2017년의 발표 사전심사 통과 비율은 27%에 불과하여, 제출된 자료의 약 1/4만 컨퍼런스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발표 희망자는 자신의 발표 자료를 블라인드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참석자들은 컨퍼런스 첫날 발표 이후의 칵테일 타임과 마지막 날의 야외

저녁식사를 통해 네트워킹의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참석자가 '자동차 사이버 보안부문의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와 같았다' 라고 표현했을 만큼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을 얻어냈습니다.

ESCAR USA 2017를 주최한 이타스, 에스크립트, 트러스트포인트 직원들

저자

클라우디아 하트웰 (CLAUDIA HARTWELL),
이타스 미국, 선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